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 위기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

조승호, 홍숙영*, 조정렬

본 연구는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대한 요인의 한 가지로 위기 평가자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가, 이러한 평가와 6·2 지방선거 간의 상관관계,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위기대응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대응을 평가하는 응답자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나 이것이 6·2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위기대응평가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자는 정부의 위기대응이 적절하였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기 대응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 성향이 편향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위기 대응 평가, 천안함, 개인의 정치적 성향, 62지방선거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테러나 외교관계, 전쟁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나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내적 충격은 정치인들에게는 위협요소이자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경우 오히려 위기 주관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들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9·11테러 이후 그의 임무 수행에 커다

* 교신저자.

란 변화가 생기면서 위기대처 능력을 재평가 하게 되었다. 대국민 홍보, 조직력, 정치적 기술, 정책 비전, 인지적 스타일, 감성적 지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임무 수행은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극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이다(Greenstein, 2002). 이에 따라 그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능력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위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위기 대응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위기관리자의 소통능력이나 리더십, 이미지, 명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와 관련하여 위기를 평가하는 개개인들의 어떠한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위기의 평가에 있어 개인의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위기의 평가와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해 국민이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시행된 6·2 지방선거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병행하였다. 끝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위기 평가자의 사전 편차가 위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기존문헌 검토

개인의 성향과 국가 위기 대응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과 미디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김영주는 천안함 침몰 사건 초기 정부당국이나 군, 미국 모두 침몰 원인으로 북한과 연계시키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점차 시간이 갈수록 북한을 심층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보수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각색하여 보도하면 정부와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황색 저널리즘이 기승을 부릴 뿐 아니라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가정 형식의 기사가 판을 치고 있다며 6·2지방선거에 북풍의 이용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김영주, 2010).

정재철(2009)은 기자들의 북한관련 취재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기자들이 같은 민족으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띤다고 하였다. 특히 북한의 행동, 정세, 분단체제, 국민 정서, 미국 쪽 정보가 기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엽(2007)은 국가 안전과 직결된 북한 핵 문제는 13년 동안 매우 복잡하게 전개돼 왔으나 언론은 1차 핵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4년의 취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장기적이고 복잡한 이슈를 단기적 사건으로 처리하는 기존 관행이 북한 핵관련 취재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핵이나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측의 정보제공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며, 결국 건전한 여론형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오현(2002)은 미국과 다른 나라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인한 위기의 시기에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어떤 보도태도를 보이는지 1994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위기 때 실린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는 평화적 해결방식보다는 김일성과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행동 같은 억압적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권장하는 보도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유세경(2010)의 연구자들은 뉴욕타임스와 인민일보가 각각 다양한 틀짓기 방식을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사량에 있어 인민일보는 북한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져 시기적으로 기사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기사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두 신문 모두 주제 중심적 프레임보다는 간략한 에피소드를 다루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을 구성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규정, 원인, 결과, 책임들을 자의적으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하상복(2003)은 머레이 에텔만의 상징정치론에 입각하여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분석하면서 미국정부가 물리적 차원보다 상징적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하였다고 보았다. 에텔만은 폭력의 책임자인 ‘적’과 폭력의 관리 주체로서 ‘우리’와 ‘리더’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며 이는 정부와 미디어의 협력을 통해 전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9·11 사태의 경우 정부, 특히 대통령의 담론과 미국 텔레비전 보도의 상호 협력 속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폭력의 책임자로, ‘미국인’과 ‘부시’가 폭력의 관리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징화 과정 속에서 미국인들은 폭력이 초래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해소될 수 있는 심리적 길을 찾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의 태도는 미디어와 연결되면서 관리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부상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과 위기관리 능력은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형성이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위기 주관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위기를 평가하는 평가자 개개인의 성향이나 태도가 위기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자들의 태도나 성향 혹은 신문사의 편향에 따라 위기와 관련한 기사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연구들을 통해 개인적 편향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위기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조직에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위기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연구한다. Weiner(1979)의 귀인이론에 따르면, 위기의 유형은 크게 위기의 통제가능성, 위기 반복성, 위기 발생위치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Coombs, W. T. 2005). 먼저, 통제 가능성의 경우, 통제 가능한 위기가 닥쳤다면 위기에 대한 조직의 책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복성은 위기가 처음 발생했는지 아니면 동일한 위기가 과거에도 발생했는지를 의미한다. 과거에 발생한 위기가 재발했을 경우 조직의 책임정도는 높다. 마지막 유형은 위기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는지 혹은 외부에서 발생했는지 그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위기는 조직외부에서 발생한 위기보다 더 높은 조직의 책임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통제가능하고, 반복적이며, 조직내부에서 발생한 위기일수록 조직은 사과(Apology)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반면에, 통제 불가능, 비반복적, 조직외부의 위기일 경우 변명(Excuse) 혹은 부정(Denial)과 같은 방어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천안함의 경우 북한의 공격이 확실하다면 통제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나 군 당국의 책임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복성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군의 공격일 경우 이는 기준에 얼마나 북한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공격이 있었는지가 반복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발생위치를 살펴보면,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때, 정부의 책임은 내부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는 조직의 위기 평가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귀인이론의 주요 요인들과 함께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Benoit, 1997), 기업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적절성과 공중의 감정 등이 주로 연구되어왔다(Jin, 2001). 긍정적인 조직의 명성과 이미지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조직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한편 조직의 위기유형과 관련하여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직은 공중의 비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982년, 존슨앤존슨 사(社)의 두통약 타이레놀을 독극물이 든 상태에서 복용한 미국인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회사는 전국의 타이레놀을 모두 회수하여 93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선택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존슨앤존슨 사(社)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위기 평가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위기 대처 방안을 평가하는 공중의 ‘감정(Emotions)’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Cho & Gower, 2006; Jin, 2009). 이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감정, 조직에 대한 감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요인이 위기 평가 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에 감정적 이입, 정부 및 군의 커뮤니케이션 등은 공중의 천안함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위기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간에 명확하게 다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다양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인일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평가가 사건 이후에 치러졌던 6·2지방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위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Benoit, 1997). 실추된 이미지는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제품태도 및 구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mbs, 2005). 천안함 사태 이후에 치러졌던 6.2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국민적 선거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현 정부의 이미지 혹은 명성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6·2 지방선거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 공중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이러한 평가가 위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국가 위기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아보고, 위기 대응 능력 평가와 선거와의 상관관계 및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위기 대응 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개인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2) 개인의 정치 성향 별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개인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고, 6·2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이며, 설문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온라인 설문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을 대상으

로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령, 직업, 성별, 학력, 출신지역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10대 4.8%, 20대 42.9%, 30대 22.2%, 40대 19.0%, 50대 11.1%이고, 직업은 학생 38.1%, 회사원 17.5%, 자영업자 14.3%, 전문직 6.3%, 주부 11.1%, 무직 1.6%, 기타 11.1%, 성별은 남성 52.4%, 여성 47.6%,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4.8%, 고등학교 졸업 14.5%, 대학 재학중 29.0%, 대학 졸업 33.9%, 대학원 재학 중 8.1%, 대학원 졸업 9.7%, 출신지역은 서울 28.6%, 경기도 34.9%, 강원도 1.6%, 경상도 11.1%, 전라도 14.3%, 충청도 9.5%로 조사되었다.

3. 측정방법

1) 위기관리평가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기관리공중평가에 쓰였던 Coombs(1996)의 평가측정에 항목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문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 (라)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신중을 기했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

위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 (전혀아니다 = 1, 매우그렇다 = 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라)와 (마)는 데이터 입력 시 역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항목의 내적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변량이 53.53%, Cronbach's Alpha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적 성향 측정

정치적 성향(political bias)이란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좌파 혹은 우파에게 제시되는 공정한 결과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Eric, 2008).

정치적 성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관적 자기 평가를 사용하거나 객관적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왔다. 주관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연구자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진보로 구분하고,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적, 보수적, 매우 보수적인지 주관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최유석, 2011).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진보적 성향/중도 혹은 보수로 나뉘어 주관적 측정을 시행하였다(윤상우·김상돈, 2010).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국정지지, 지지정당,

이념 성향, 역대 최고 대통령은 누구인지 등 5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조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도록 한 연구도 있다(김도환·황상민·최윤식, 2011).

한편 양윤·홍수정(2010)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정치이념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별한 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이념성향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김주찬·윤성이(2003)의 이슈 선별 방식에 의거하여 사회, 경제, 정치부문으로 문항을 구성한 뒤 시장과 정부 중 시장을 중시하면 보수,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 진보, 평등과 효율 중 평등을 더 중시하면 진보, 효율을 더 중시하면 보수로 구분하였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면 진보로, 그렇지 않으면 보수로 구분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은 사안별로 복잡하고 미묘하며 따라서 이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선거와 관련하여 스스로가 평가하는 보수와 진보의 성향이 유권자의 태도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 따라 연구자들은 기존의 주관적 평가 방식을 이용하여 보수적, 약간 보수적, 중립적, 약간 진보적, 진보적 다섯 가지로 정치적 성향을 나눈 뒤 응답자 스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 3.8%, 약간 보수적 13.5%, 중립적 51.1%, 약간 진보적 25.6%, 진보적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위기대응으로 인한 6.2지방선거영향 측정

정부의 위기대응이 실제로 6·2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항의 구성은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위기대응이 6.2지방선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본 결과 다음의 항목들이 도출되었다. (가) 이번 지방선거에 정부의 천안함 사건 위기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나타났다, (나) 정부의 천안함 사건 위기대응은 여당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라)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전쟁분위기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위의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들 항목들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변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변량이 64.7%,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개인의 평가

정부의 위기 대응방식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알아보는 연구문제 1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

항을 작성하여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 (라)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신중을 기했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 각 항목들을 내적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동의 여부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7%는 (가) “정부는 사건원인 파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에 동의하였으며, 14.9%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국민들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 사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82.1%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7%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14.2%는 중립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부족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6%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24.6%가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38.8%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라) “정부는 사건 원인 파악에 신중을 기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3%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38.8%가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2.8%는 “중간”이라고 답하였다. (마) “정부의 위기대응은 적절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9.7%는 “적절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4.2%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2. 정치 성향에 따른 위기 대응 평가 및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공중의 정치 성향 별 정부의 위기 대응 평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분석을 통해 개인의 정치 성향(보수, 약간보수, 중립, 약간 진보, 진보)이 정부의 위기대응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4, 133) = 6.85, p = .000$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개인 각각의 정치적 성향 정부의 위기대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ukey를 이용한 Post-Ho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을 보면,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 vs. 보수 & 약간보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약간진보 vs. 보수 & 약간보수, 중립 vs. 약간보수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 위기대응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표 1> 종속변인: 국민평가

정치적 성향	평균값		평균차이	Sig.
보수적	2.88	약간 보수적	-.120	.997
중립적	-.678	.191		
약간 진보적	-.908(*)	.042		
진보적	-1.170(*)	.022		
약간 보수적	3.00	보수적	.120	.997
중립적	-.558(*)	.017		
약간 진보적	-.788(*)	.001		
진보적	-1.050(*)	.003		
중립적	3.55	보수적	.678	.191
약간 보수적	.558(*)	.017		
약간 진보적	-.229	.480		
진보적	-.491	.290		
약간 진보적	3.78	보수적	.788(*)	.001
약간 보수적	.908(*)	.042		
중립적	.229	.480		
진보적	-.261	.857		
진보적	4.05	보수적	1.170*	.022
약간보수	1.050*	.003		
중립	.491	.290		

※ *p <.05, **p <.01, ***p <.001.

한편 연구 문제 3 “개인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공중의 정부위기 평가 5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한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선거영향에 대해서도 한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영향력 분석을 하기 위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Spss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중의 정부위기대응 평가가 선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142$).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 대응을 평가하는 응답자의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같은 평가가 6.·2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선거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한 평가가 정책의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 현실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의 경우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위기대응은 적절하였거나 보통이었다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진영의 경우 정부의 위기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이 정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 사전 편차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의 위기대응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위기대응 방식뿐 아니라 정부와 개인 간에 형성된 정치적 관계가 위기대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모든 활동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 및 복지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정부의 정책 시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업에 적용시킨다면, 기업과 개인의 관계 및 정체성의 문제가 기업의 위기 대응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기존 위기관리 연구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현재까지 위기관리 평가에 있어 위기의 원인, 주관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존 명성, 이미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즉 위기 당사자 혹은 위기 관련자가 평가요인의 주요한 부분으로 연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평가하는 주체의 정체성 및 개인적 성향 등이 기업 혹은 정부의 위기대응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 가운데 정치적 성향만을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위기 평가와 관련한 공중의 감정적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편차들을 추출해 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개인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정체성,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 등 위기를 평가하는 개인의 사전 편차에 중점을 둔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환 · 황상민 · 최윤식. 2011.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83-208.
- 김영주. 2010. 남북갈등과 미디어. 한국방송학회. 2010 봄철 정기학술대회. 14-24.
- 김주찬 · 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 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2): 1-17.
- 양윤 · 홍수정. 2010. 사회문제,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탐색에 미치는 영

- 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3): 289-310.
- 유세경 · 정지인 · 이석. 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침몰 사건’ 뉴스 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16: 105-146.
- 윤상우 ·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이광엽. 2007. 북한 핵 사태와 언론의 대응.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1: 193-203.
- 이오현. 2002. 위기 부추기기. 언론과학연구. 2(3): 185-212.
- 정재철. 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8: 135-152.
- 조정렬. 2005. 미디어크리시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 뉴스의 매체구조. 홍보학연구. 8(2): 269-301.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57-83.
- 하상복. 2003. 9·11 폭력과 위기 관리의 정치: 머레이 에델만의 정치 이론 연구. 사회이론. 24: 271-300.
- Benoit, W. L. 1997. Image Repair Discourse and Crisi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3(2): 177-186.
- Cho, S-H. & Gower, K. 2006. The Effect of Framing on Public's Preception of Crisis: Human Interest Frame on Attribution to Responsibility and Blame. *Public Relations Review*. 32(4): 420-422.
- Coombs, W. T. 2007. Protecting Organization Reputation during a Cris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Corporate Reputation Reivew*. 10: 163-176.
- Coombs, W. T. 2007. Attribution Theory as a Guide for Post-Crisis Communication Research. *Public Relations Review*. 33(2): 135-139.
- Coombs, W. T. & Holladay, S. J. 2005. Exploratory Study of Stakeholder Emotions: Affect and Crisis. In N.M. Ashkanasy, W.J. Zerbe and C.E.J. Hartel (eds.), *Research Emotion in Organization*. 1: 271-288.
- Eric, A. P. 2008. Does Political Bias in the Judiciary Matter?: *Implications of Judicial Bias Studies for Legal and Constitutional Reform*. <http://law.bepress.com/alea/18th/art117>
- Greenstein, Fred I. 2002. The Contemporary Presidency: The Changing Leadership of George W. Bush: A Pre- and Post - 9/11 Comparison. Fred I. Greenstei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Academic Research Library*. 32(2): 387-396.
- Jin, Y. 2009. The Effects of Public's Cognitive Appraisal of Emotions in Crises on Crisis Coping and Strategy Assessment. *Public Relations Review*. 35(3): 310-313.

Jin, Y. 2010. Making Sense Sensibly in Crisis Communication: How Publics' Crisis Appraisal Influence Their Negative Emotions, Coping Strategy Preference, and Crisis Response Acceptance. *Communication Research* 37(4): 522-552.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趙承浩: 미국 앨라바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논문: 조직위기에 대한 외부공중의 평가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의 역할, 2007), 현재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합마케팅, Cause-Related Marketing, 위기관리, 뉴미디어 & 마케팅이다. 최근 주요 저서는 “The Effect of Human Interest Framing in Cause Related Marketing(CRM) on a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Empathy(공저, 2011),” “Moral Judgment and Blame in Crisis Management(2011),” “Exploring Political Figures’ Image Through Microblogging: Analyzing Twitter Messages of Political Figures (공저, 2011).” 등이 있다(sc616@ssu.ac.kr).

洪淑英: 프랑스 국립파리 2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V사회토론프로그램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 연구, 2007),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언론중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선거토론평생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미디어콘텐츠 분석이며,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2011) 등의 저서와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의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2009), ‘가상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2010), ‘TV다큐멘터리의 아동성폭력 재현 방식: KBS시사기획 ‘쌈’을 중심으로’(2011), ‘마이크로 블로깅에서의 정치인 이미지 구축방식-정치인의 트위터 메시지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1)등의 논문이 있다(marylou@naver.com).

趙正烈: (미)앨라바마 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논문: 피알실무자들의 조직역할과 온라인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브랜드, 위기관리 등이며,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저서와 주요논문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공저, 2004)”가 있고, 논문으로 “<홍보학연구>의 홍보학연구(2008),” “위기관리와 위기커뮤니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분석(2005)” 등이 있다(jojungyul@sm.ac.kr).

투 고 일: 2011년 11월 11일
수 정 일: 2011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30일

The Effect of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on Evaluation on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 The Case of Frigate Cheonan Disaster –

Seung Ho Cho, Su Kyeong Hong, Jeong Ryeol Cho

This study explores how an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influences his/her evaluation on government's crisis response. The case of Cheonan occurred in March 36, 2010, was analyzed for investigating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and public's response to the government. We also looked at how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of Cheonan was associated with local election held on June 2, 2010. The findings showed that individuals' political position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evaluation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The more conservative, the more supportive on government crisis response on Cheonan.

Key words: evaluation of crisis management, frigate cheonan,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local election